



## 공한 세상을 공하게 보고 공한 데다 다시 말져 놓아야

‘말은 하면 될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있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말은 하면 될 하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늘을 쳐다보고 어떤 때는 눈물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는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무심하게 가는 걸 보면 아예 말하기도 싫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같이 나도 아픔을 겪어 봅니다. 보면 보는 대로 딱하고 그렇게 안됐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하기 이전에 생활 속에 여러분과 같이 뛰어들어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행을 해서 조금이나마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죽이나 좋을까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일을 다양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삶이 좀 더 편리해지고,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 집안에 따뜻하게 들어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거나 또는 한가지 속에서 누가 괴롭다면은 서로가 한마음이 돼서 이끌고 갈 수 있어야나도 쉽고 서로가 다쉬울 것을, 그렇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하나만 알고 자기 이름만 알고 마음으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 멍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에서 조금만 누구가, 부부가 서로 한마음이 됐더라면 내가 더욱 쉬울 텐데, 나도 쉽고 그 집도 쉽고 서로가 쉬울 텐데 이렇게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높은 부처님의 뜻과 말씀이 있기 이전에 우리들의 아픔 속에서, 그 조그마한 소용돌이 속에서 알아야만 하죠. 그걸 모른다면 부처님 말씀의 그 큰 뜻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처음 오면 해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딸을 하나 데리고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상당히 안고하셨습다. 아버지 없는 대신으로 엄마 뒀어 뒀어 다 하면서 딸을 귀중하게 사랑하고 있었습다. 그런데 그 딸이 참 예쁘장하고 잘생겼는데 대학을 다니던 도중에 어느 사람을 사랑했습다. 그런데 어머니가 알고



그림 · 최주현

는 “왜 엄마도 모르게 아무나 그렇게 만나려 다니느냐? 왜 사랑할 것 같으면 탁 털어놓고 그 집 부모와 서로 알게끔 하지 않느냐?” 하니까 엄마가 알면 거부할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따님을 늦게 만나지 못하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나가고는 싶었는데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음료수에다가 잠드는 약을 좀 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다. 조금, 그저 주무실 동안에 내가 갔다 오리라 생각했는데 그만 너무 약을 많이 뒀던 모양입니다. 나갔다 들어오니까 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다. 그런 데 그 따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랑하는 남자와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됐습다. 그래서 집으로 끌어들이고 어린애를 하나 낳았습다. 결혼도 하기 전에. 그쪽 남자의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자 쪽 부모도 없으니 거기서 그냥 살도록 했습다. 결혼을 시켜서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꿈에 툇 나타나 시더니 “네 사랑을 위해서, 네 남편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살맛이 나느냐?” 하시더랍니다. 너 하나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이 어느 만큼 화를 미치는 지 너는 짐작도 못할 거라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이 싫다.” 그러더랍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잤습다. 그런데 사흘 되던 날 남편이 죽었습다. 남편이 죽고 배고 있던 어린애를

낳았는데 어느 날 그 집의 시어머니가 또 꿈에 보이더랍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네 남편을 잡아먹고 잘 살 것 같으냐?” 하더랍니다. 또, 그 시어머니는 살아 있는데도 꿈에 보이더니 어린애를 빼앗아서, 내 자식이나 내가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서 빼앗아 안고선 물로 들어 가더랍니다.

그 꿈을 깨고서는 앞서도 어머니가 그랬는데, 시어머니로 보이면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놀라서 어린애를 하루 종일 부둥켜안고선 놓지를 않았습다. 그랬는데 갑자기 경기를 하면서 숨을 몰아쉬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진찰하는 도중에 죽고 말았습다. 그 후엔 혼자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다. 그 후에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다. 내 생각으로는 그 한 생각이, 그 따님의 한 생각이 그런 불씨를 가져왔습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끊어지거나 하면 끊어지지 않습다. 내내 연결되고 엮히고 설키게 되죠.

우리에게 현재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들이 지어 놓은 것이지 지금 새삼스럽게 다가온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끄는 게 아니라 녹이면서, 앞으로 개척하고 개발해서 내 마음의 차원을 질적으로 높여 가야 합니다. 그렇게 질적으로 높아졌을 때 미래에 다가올 것을 다 녹이고

윤회속, 유전속, 업보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벗어나야 아예 되고 아니 닿는 데가 없는 손 없는 손, 눈 없는 눈이 돼서 방방곡곡 어디 에고, 누구한테나 이익을 줄 수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다 거두어 줄 수 있는 능력의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남을 건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보살행이거든요.

우리가 꼭 머리를 쥐고 안 쥐고 간에 생활 속에서 이익이 없다면 왜 종교를 가져야만 합니까? 종교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부터 이루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넓으면 넓은 대로 우리가 한데 합쳐진 공(空)한 세상을 공하게 보고, 공하게 돌아가는 이 살림살이를 공한 데다가 다시 말져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산다면 급급하지도 않을 겁니다. 가난해서 밥을 굶는다 하더라도 급급한 생각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옛사람 말처럼 ‘나물 먹고 물 마시니 이민하면은 만족할 것을 그렇게 그랬다.’ 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도 되지 않고 말입니다. 없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각자 없는 것도 더 잘 알고 아픈 것도 더 잘 알고 매사의 문제들을 본인 자신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공심(空心)으로 돌아가는 능력으로 써 우리는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쭙해서 먹으려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다. 여쭙해서 먹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오히려 구멍이 빠지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 부처님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묘한 법이고 광대무변한 법이며, 불가사의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이 우리를 생활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생활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 마음의 능력은 누가 그것을 좇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깥으로 돌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만 거기에 눈이 어둡게 되고 귀가 밝지 못하게 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에서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이 법을 소상히 알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맘대로 죽습니까, 살았다고 맘대로 살 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틀바구니에서

도 한생각은 저 감물 흐르듯이 여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없어지라 해서 없어지고 생기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물은 우주를 덮고도 남고 싸고 돌아도 남습다. 그렇듯이 한생각의 법도 여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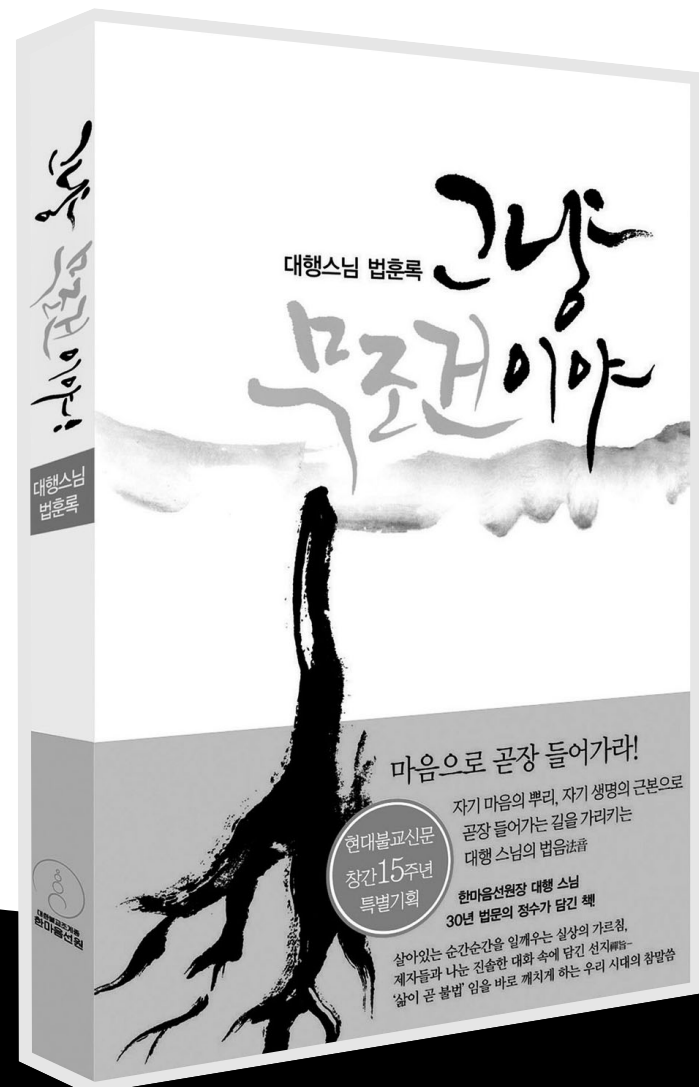
또 물과 같이 인간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내 몸의 피도 물 흐르듯 흐르고, 만약 지혜가 모자란다면 피도 졸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피가 잘 소통되지 않는다, 어디가 잘못됐다, 눈이 어둡다 하는 게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 한생각이 매사에 적합하지 않게 자꾸 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속상해하니깐 은근히 그것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적이어서 짜짜기가 되고, 이렇게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니깐 위막이나 장막이나 간막에 음식을 먹어도 짜짜기가 항상 누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누적이 되니까 역시 물질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병이 오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군데가 아프다 그래서 꼭 거기서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딱 데서 고장이 나서 거기까지 오는 것이지.

이런 문제 등등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천차만별로 잘나잘나 화(化)해서 돌아가는 이 만법의 진리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참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한 번만 속 끓여 보십시오. 숨이 차고 벌써 눈이 게슴츠레해지고 귀가 멍멍하고 보이는 게 없고 누구가 잘하든 못하든 벌써 보면 신경질이 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를 때는 자기 몸을 자기가 굶어서 피를 내는 거나 같죠. 그리고 아파서 애크 쓰는 거죠.

어저께 텔레비전에서 ‘추적 60분’을 보니깐 맨손으로 수술하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여러분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요지경 속 같아서...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요지경이다 이거예요. 부처님 법은 손이 가지 않고도 손이 갈 수 있는 마음의 법인 것이지 요술부리기처럼 하는 그것은 마술과 같은, 인간의 자비성이 아니라 그것은 사기성이에요. 그런 예가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어저께 텔레비전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더군요. 그러니 얼마나 요지경입니까? 인간의 마음들이 진실치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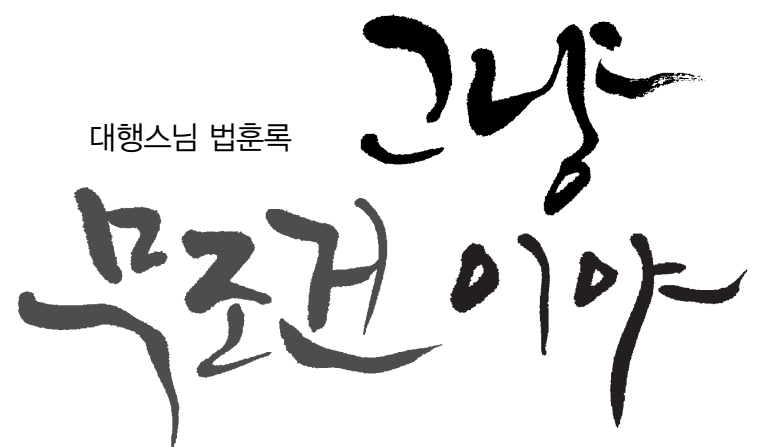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양장본 / 2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